



2021년 3월 28일(제1028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

오늘은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성주간은 교회의 전례 주년 중 가장 의미 깊은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수난, 죽음을 기념합니다. 때문에 모든 전례 의식은 커다란 슬픔과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특히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수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 교회는 성지를 축복하고, 축복된 성지를 들고 행렬을 거행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 가지를 가지는 길에 깔았던 것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당의 상황에 따라 행렬과 성대한 입당을 거행할 경우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복음을 수난기에 앞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에 타신 주님은 터덜터덜 또 이리 기우똥, 저리 기우똥하며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의 앞으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거나 걸옷이라도 벗어 길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음을 떠올리면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생각보다 초라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피정 지도를 받을 때, 신부님께서는 이 모습과 로마 군대를 비교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의 축제일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축제 때 폭동을 막기 위해 로마의 군대 또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군마에 탄 채 깃발을 앞세우고 대열을 갖추 행진했을 것입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성문을 지나 고관대작들의 마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저 휘청거리는 어린 나귀를 따라갈 생각인가? 위풍당당한 로마군에 자꾸 눈길이 간다면, 이 길이 나와 맞는 지 다시 생각해보라.”

어린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재판대에 서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의 고향을 들으십니다. 군중 중에 어린 나귀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발견하고 바닥에 걸옷을 깔던 이는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통치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분께, 저 로마의 위용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가장 보잘것없는 곳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십자가를 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장 아픈 곳을 바라보는, 복된 성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승원(베드로) 신부
은상대(19집비전) 상당 주일

제 1 독 시 회답송 제 2 독 시 복음 권호송

이사 50,4-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필리 2,6-11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영성제송

마르 14,1-15,47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여섯 번째 시화

그러나 조선은 얼마나 불행한 땅입니까! 그렇게나 여러 해 동안 목자들을 여의고 외로이 지내다가 갖은 노력을 들여가며 가까스로 맞이한 신부님들을 일시에 모두 잃었으니, 이 조선은 얼마나 불운합니까? 적어도 한분만이라도 남겨 두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다 삼켜 버렸으니 조선은 참으로 안타깝고 패씸합니다. 요새는 박해가 멎어서 신자들은 조금 안정을 누리고는 있지만, 신부님들이 계시지 않아 마치 목자 없는 양 떼처럼 탄식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주요한 배반자가 된 김여상은 사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형 이유는 그가 흉악한 인간으로서 남들을 공적으로 해쳤기 때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이따위 인물은 사형을 받고 매도당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는 자기 아내의 부모(장인과 장모)를 신고하였으므로 국법에 따라 교살당하였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한 포졸 대장도 짐작하건대 남에게 불의한 짓을 저지른 탓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된 후 사형을 받았다고 말할 합니다.

주변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님을 인도하기 위하여 변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외교인들의 의혹과 박해의 위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외교인 친구들이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중국에 들어가 북경까지 갈 수 있는 허락을 얻어서 사신들의 일행 중의 명단에 올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신부님의 입국에 대하여 다른 신자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신부님들이 1년 후에야 담당 선교지인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2월쯤에 신부님을 인도할 준비를 할 마음으로 제가 곧 조선에 들어가는 여행을 계속할 차비가 되어 있음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느 누구라도 조선에 입국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는 국경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나무꾼 행세로만 입국할 수 있을 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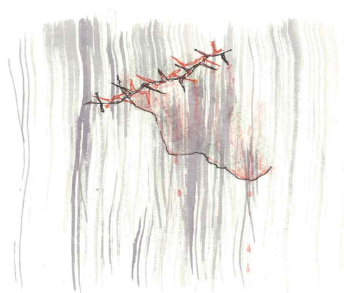
저는 이쯤 듣고 나서 그가 가지고 온 편지들을 받고 그와 작별한 후 변문(즉 책문)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화』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빛물이 흘렀습니다.



빛물이
흘렀습니다.

빛물이
흘렀습니다.

님의
얼굴을
씻으려.

세상을
씻으려.

상화이야기

갯세마니 동산에서의 빈민



지오반니 벨리니, 1459년~1465년경 제작
나무 패널 위 탭페라화, 81cmx1.27m / 니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성배를 들고 있는 천사

수난 전에 밤을 새워 갯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아래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정면에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베드로 성인으로 추측) 남성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코를 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 멀리 길에서는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천사가 성배를 들고 예수님 앞에 있다. 저 멀리 동쪽으로 해가 뜨고 있는데, 이해에서 비치는 빛이 예수님의 의복과 몸, 그리고 언덕을 온통 분홍색 혹은 옅은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예수님 쪽으로 향하는 길가의 군인들

교 구 소 식

군중위원회 회의를 위한 미사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령오 장전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유축성미사

때·곳: 3월 30일(화)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